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 도 자 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
	<b>배포일시</b> 2018. 9. 6.(목) / 총 3매(본문3)		
<b>담당 부서</b> 교통정책조정과	<b>담당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안석환, 사무관 나민희, 주무관 윤현식</li> <li>• ☎ (044) 201-3804, 3792, 3784</li> </ul>		
<b>보 도 일 시</b>	2018년 9월 6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5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교통비도 아끼고, 건강도 챙기는 알뜰교통카드 도입 확대 작동방식 간소화, 모바일 앱 카드 등 이용자 편의 대폭 개선 - 내년부터 세종시·울산광역시·전주시 본격 시행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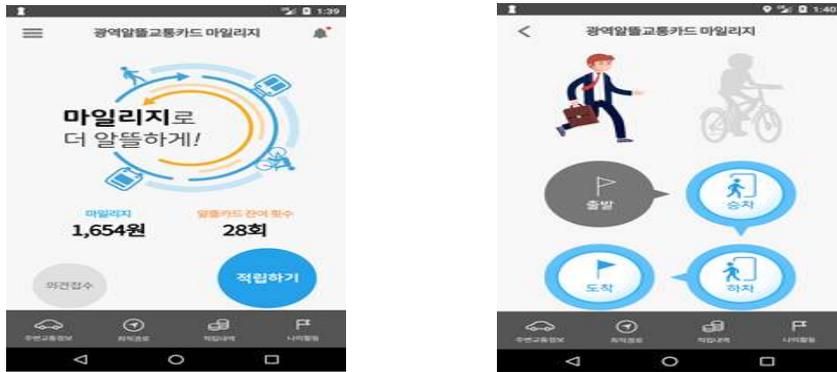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세종시(4월)에 이어 울산광역시와 전주시에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.
  
- 광역알뜰교통카드는 10% 할인된 정기권(월 44회 이용)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걸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(이용 실적 점수, 이하 '마일리지')를 지급(최대 20%)함으로써, 최대 30%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.
  
- 이번 울산·전주 시범사업은 세종시 시범사업에 참여한 체험단이 건의하거나 시범운영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.
  
- ① (앱 개선) 우선, 다단계 수동조작 방식을 간소화(기존 7단계 → 4단계)하고, 정류장 QR코드 인증 방식을 위치기반 자가인증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, 마일리지 앱 사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였다. 또한, 출도착지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이동거리를 산정함으로써 배터리 및 데이터 소모를 최소화하도록 개선하였다.

\* 마일리지 앱 사용절차 간소화

- (현행) ①앱 구동 → ②출발 버튼 → ③승차 QR인증 → ④버스 하차 → ⑤하차 QR인증 → ⑥도착 버튼 → ⑦앱 종료
- (개선) ①시작 → ②③버스 승·하차 → ④종료

- 특히,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그동안 안드로이드용 휴대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했으나, 아이폰(iOS)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.

< 보행·자전거 마일리지 앱(시범사업용) >



② (모바일 앱 정기권 도입) 선불형 알뜰교통카드(Plate 타입) 별도 소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출시된 모바일 방식의 카드를 통해 휴대폰 하나로 교통비 할인이 가능해 진다.

③ (충전방식 개선) 기존 선불카드는 별도로 지정 충전소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휴대폰의 NFC 기능을 활용하여 모바일로 충전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.



< 모바일 앱 카드('18.10 출시예정) >



< 모바일 충전 >

□ 금번 울산·전주시 시범사업은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도시별로 각 500명씩 체험단을 모집하게 되며, 선정된 시민들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광역알뜰교통카드를 구입·사용해 보고,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게 된다.

\* 체험단 참여를 원하는 분은 울산시청(www.ulsan.go.kr) 또는 전주시청(www.jeonju.go.kr) 홈페이지 내 별도 모집 배너를 통해 신청 가능

□ 내년도에는 세종시·울산광역시·전주시에 본 사업을 추진\*하고, 수도권을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도 다양한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.

\* 본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1억원 반영

□ 국토교통부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“금년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기술 발전 상황 등을 지속 보완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”이며, “수도권 등 보다 많은 국민들이 조속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, 운송사업자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나민희 사무관(☎ 044-201-379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